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번 하계방학 중 우리대학은 광복 70주년이자 개교 68주년을 맞아 '2015 국토대장정 - 독립의 길 함께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대학 설립자이신 범정 장형 선생께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애국 강연 경로'의 일부 구간을 학생들이 직접 걸으며 나라사랑의 정신을 체득하자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이기엔 아직 약관의 나이를 갓 넘은 학생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무척 걱정을 했으나 예상 밖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별도의 대장정 답사단 선발 과정을 거쳐 귀댁의 자녀를 비롯한 1백 명의 학생을 가려 뽑아야 했습니다.

단국대 교직원들은 젊은이의 패기와 도전정신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며 대장정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학습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교정에서 결단식을 갖고 광주광역시로 옮겨 이튿날부터 대망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로부터 9일 동안 참가학생들은 작렬하는 햇살, 거센 빗줄기, 달아오른 땅의 열기에 시달렸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육신거리는 발바닥과 무릎을 감싸 안고 아늑한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이기에 학생들의 고행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부모의 마음으로 의도치 않은 고생이나 부상이 없도록 참가학생의 안전과 건강 유지에 시종일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9박10일의 여정을 마치고 귀댁의 자녀와 1백 명의 학생들은 총 290km의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종착점인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에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참가학생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걷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열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댁의 자녀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따가운 햇살에 그을리고 피곤이 겹친 기색이 안쓰러웠지만 그 눈빛과 기백만큼은 백두산을 오르기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무사히 국토대장정의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부모님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교직원들도 형제이자 부모가 된 심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의 힘은 바로 참가학생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치고 힘들 때, 가족과 집이 그리울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서로 힘을 주고받았습니다. 고비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던 그들의 모습에 저는 눈시울이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넓고 따뜻한 마음이 저는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귀댁의 자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젊은이입니다. 가슴 속에 애국심과 애교심, 그리고 학우들과 도전하고 힘을 모아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단국의 건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겨보자고 나섰던 대장정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광주를 시작해 정읍, 익산, 대전을 거쳐 천안까지, 열흘 동안 290km의 대장정을 통해 참가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힘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자녀들을 격려하고 계속 응원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저는 자녀의 애교심과 애국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귀댁의 자녀를 지식과 인성을 갖춘 자랑스러운 청년으로 길러낼 것을 다짐하면서 귀댁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11일

단국대학교 총장 장 호 성